

올바른 소비관 | 동서소 동서을

김 용 화

소비와 문화척도는 미묘한 관계를 나타낸다. 개별적 독립관계로 단정하기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소비와 문화를 융합시키면 소비문화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용어가 된다.

이와 같은 소비는 반드시 문화와 병행하여 변화되고 결정지워지게 마련이다. 소비가 전문화되면서 소비 그 자체를 창출하는 소비자의 의식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된다. 필요에 의한 소비와 모방에 의한 소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식품소비에 비추어 꼭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적어본다.

닭고기가 무엇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먹는 고기로 인식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역사적으로, 지리적 특성 때문에 타육류보다 먹어볼 기회가 많았음은 사실이지만 굳이 닭고기를 먹으면 가난한 사람처럼 인식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들(부유층)이 먹는 고가(高價)식품에 닭고기의 함량이 매우 높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닭고기로도 영양이나 맛을 충분히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다고 식품제조업체 당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자신(양계가)이 생산한 닭고기가 값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서운할 것이라 본다. 그러나 소비를 결정하는 문화구조가 쉽게 이와 같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음이 더욱 가슴아플 뿐이다.

지극히 단순한 본인의 생각으로 우리업체가 생산한 산물이 고가품 원료로 쓰인다기에 사실대로 밝혀 볼 마음이었으나 그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사실인즉 사실대로 밝혀지면 소비가 위축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쉬쉬(?) 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면서도 위축이라는 압박 때문에 과감한 마음이 사그러들고 만다.

혹 닭고기가 정말로 가치없는 고기였다면 모르지만 아무런 근거조차도 없는 이설(異說)에 열병을 앓게되는 소비자의 모방심리는 비효율적인 소비의 표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역지로 먹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비싼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먹던 식품의 맛처럼 맛이 있으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소비 자체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맛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식생활 의식구조의 패턴과 소비문화의 발전이 정말 어렵다.